

구로경찰서 교경(경목)협의회 군산견학 가져

서울에서 가장 모범되고 명실상부한 1등 경찰서, 교경(경목)협의회가 되길



교경협의회 회장 이춘복 목사(남현교회)

구로구 구로경찰서 교경(경목)협의회(회장 이춘복 목사/남현교회)는 충남 부여에 있는 유적지 부소산과 한산모시관을 거쳐 전북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비응도 섬, 새만금방조제, 격포, 금소, 줄포 등을 견학 일정을 1박2일로 정하고 목회자 사모들과 동행하여 11월10일(목)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에 소재 남현교회에서 교경

협의회 회장 이춘복 목사는 회원들과 함께 기도로 출발하여 부여에 도착, 부소산을 거쳐 한산모시관을 견학했다. 특히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경목실장)와 회장 이춘복 목사의 고향인 접지역이기에 지리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견학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 이어 교경협의회 일행은 군산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1박을 한 후 오전 10시 문화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현대중공업을 견학하는 가운데 동영상 관람하고 비응도를 거쳐 새만금방조제와 격포, 금소, 줄포 등 변산반도를 견학했다. 이춘복 교경협의회장은 이번

견학에서 회원들이 다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적은 회원들이 연합해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도 풍력발전소를 방문하게 된 것이 너무도 뜻이 깊었으며, 또한 문화철 문화관광해설사의 열정을 다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기에 군산과 새만금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새만금 하면 약 12Km나 되는 긴 방조제를 길을 따라 드라이브 코스 정도로만 알았지 바다를 막고 물을 퍼내며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 한 문화철 문화관광해설사



군산시 문화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교경협의회 회원들

를 통해 너무나 세밀한 설명에 감탄사가 이어지고 새만금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목회자라면 변산반도를 한번쯤

견학하는 것도 목회에 큰 유익이 되겠다며, 긍지를 가지면서 너무도 유익한 견학이 되었다고 했다. 본보 2면에서>

월세 · 난방비 · 쌀값 고공행진 서민들 살길 막막해

김장철인데 전·월세 등 집세, 휘발유, 도시가스, 쌀, 고춧가루 등이 일제히 상승해 화청거리의 서민들만 힘들고 숨가쁘다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3%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월세가 199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고, 김장철을 앞두고 대표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소금 가격이 급등했다. 도시가스 및 각종 에너지 요금도 비싸져 겨울철 서민 물가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다 이달 중으로 철도요금,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코카콜라음료는 제품 18종의 출고가격을 6~9% 인상했다.

◇ 집세 · 쌀 · 소금 · 난방비

↑...’한파 물가’=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론 농산물 및 석유류제의 지수(근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등 4가지 주요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0.2~6.6% 하락했다. 4개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기는 2005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최근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배추, 무, 파 등 채소류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10월 배추파동 등으로 급등했던 채소류 가격이 올해에는 공급 과다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소류를 빼 대부분의 생활 밀접 품목 상승세는 높다. 전·월세 등 집세와 휘발유, 도시가스, 쌀, 고춧가루, 소금 등은 크게 올랐다. 고춧가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0% 상승해 7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금도 1년 새 55.8%나 급

등했다. 주식인 쌀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7% 올랐고, 전월보다 4.4% 비싸졌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뿐 아니라 겨울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 2002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월세(3.1%), 전세(5.6%)는 각각 2003년 1월 이후, 96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 양동희 물가동향과장은 “식유류, 가공식품, 금반지, 전세, 고춧가루, 도시가스, 쌀 가격 상승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의 76.2%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서비스요금도 오름세다. 외식비가 8종 가운데 6종, 개인서비스요금은 5종이 모두 지난달보다 올랐다. 이달부터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도 예고돼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14K 금(金)목걸이, 장신구 아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

향 브리핑에서는 ‘금반지의 장신구 여부’가 논란이 됐다. 통계청이 오는 23일 확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서 금반지를 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장신구 항목에 ‘14K 이상 금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다. 이미 2009년 기준으로 개편한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물가지수도 이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국제금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금반지를 제외해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 금반지가 물가지수 항목에서 빠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0.2%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물가지수 발표는 11월 물가동향부터 이뤄지지만, 지난 1



월에서부터 소금적용돼 올 한해 물가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낮추게 된다. 때문에 현 지수상 달성하기 어려운 정부 목표치 4%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지수 개편은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권장될 부분”이라면서 “통상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정 2012년 교경(경목)협의회 임원구성 축

회장
 이춘복 목사

서울청교경회장
 박재욱 목사

직전회장
 김길진 목사

수석부회장
 조종환 목사

경목실장
 김수정 목사

부회장
 김상용 목사

부회장
 박환 목사

부회장
 김문준 목사

부회장
 윤병수 목사

부회장
 김주현 목사

부총무
 남경희 목사

서기
 이성용 목사

회계
 전 절 목사

- 협동총무 : 장기성 목사
- 부 서 기 : 이종승 목사
- 부 회 계 : 강원석 목사
- 감 사 : 김문겸 목사, 이석삼 목사

- 선교부장 : 박은준 목사
- 섭회부장 : 이수섭 목사
- 봉사부장 : 김영우 목사

구로구 구로경찰서 교경(경목)협의회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36번지 구로경찰서 경목실
 경목실장 : 010) 3752-1113

웨신총회, 노회임원 단합대회 마쳐

솔선수범하여 총회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 달라 당부



총회장 성흥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한화호텔 앤드리조트에서 총회임원 및 전국 13개 노회 신임원 단합대회를 갖고 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7일 오후 5시 총회서기 장창운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수도노회장 김연준 목사가 기도하고, 경향노회장 정태중 목사가 막10:43-45절을 봉독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총회직영신학교(학장 정기환 박사) 무용팀의 특별 연출로 워십과 특송이 있으며,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섬김의 리더십"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이날 정대성, 유우한, 방윤희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임원들에게 취임패가 전달되었으며, 총무 신연장 목사의 광고에 이어 총회장 성흥경 목사 축도로 마쳤다.



를 갖는 등 화합의 장이 이루어졌다.

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지난 1박 2일 동안 용인한 화호텔 앤드리조트에서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뜨겁게 하나로 뭉쳐지는 단합의 성과를 이루었다.

웨신총회는 이번 전국 노회 임원들과의 화합과 단합으로 화

기애애한 가운데 총회는 노회 임원들을 높이 치하하면서 하나 되어 총회 발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모두가 웨신총회원으로서 긍지와 정체성을 극대화하고 총회가 무엇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수범하여 총회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웨신총회는 전국 13개 노회 110여 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가졌으며, 예배 후에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각 노회 임원소개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교감을 이루었다.

한편 웨신총회는 대 수술을 거치면서 아직도 남은 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곧 외유내강의 탄탄한 웨신총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면서 웨신이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총회임원과 전국 노회장 임원들의 단합대회가 막을 내렸다.

합동복음, 중부노회 목사안수 임직예배 드려

양유석, 박성진, 장태범 강도사 목사 안수 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음)총회 중부노회는 제22회 정기노회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꿈꾸는 남사랑(정은섭 목사)에서 목사 임직식을 가졌다.

노회장 광동훈 목사 인도로 1

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부서기 장백향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전희권 목사(예전교회)가 딤후 4:6-8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광동훈 목사는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목사임

직에서 노회장 광동훈 목사는 양유석, 박성진, 장태범 강도사를 목사로 안수하고 공포했다. 이어서 지저스타임즈 & JTNTV신문방송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부노회장 정은섭 목사(꿈꾸는 남사랑교회)가 권면했으며, 회의록서기 박동석 목사가 축사를,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양유석 목사가 임직자를 대표해 답사가 있는 후 광

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또한 박동석 목사 집례로 성찬

식이 진행되고 박육화 목사, 김경희 목사가 분별, 분찬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친 후, 제4부 중부노회 제22회 정기노회가 노회장 광 목사 사회로 개회되어 합동복음총회 단합대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있어 합류하기 위하여 모든 중요한 안건은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내외장소를 천안 예배당기도원으로 결정하고 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안수위원은 광동훈 목사, 정은섭 목사, 정기남 목사(특별초청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박동석 목사, 장백향 목사 등이다.



합동복음, 중부노회 안수식을 마치고...

냉수 한 그릇선교회 기도회 열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0장 42절)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선교단체 '냉수한그릇선교회(대표회장 박삼수 목사·대구예일교회)'는 11월 7일(월) 오전 11시 고령직동교회(백남훈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월례회사과 전 개회예배를 통해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하며 서로 세우고 섬기는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자'라며 당부하였고 이어 월례회에서 10월 수혜 신청자 4명을 개인별로 50만원씩 섬기기로 하였다.

냉수 한 그릇 선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갑자기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속수무책인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이 분들을 일시켜 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로템나무 아래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하나씩에서 일으키심 같이 1999년 9월 창립총회를 가진 후 매월 한 번도 월례회를 거르지 않고 모여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씨를 뿌려왔다.

임지 없는 목회자,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 임지가 없거나 낙심한 목회자, 목회 중 장애와 병환으로 고통 받는 목회자, 은퇴 후 노후대책 없이 오갈데 없는 목회자, 목회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 유가족, 이처럼 속수무책의 목회자와 그 가족은 누군가는 도와야 할 '작은 자' 중의 하나다.

주위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방관할 수 없어 지난 99년 9월, 13명의 목회자가 모여 '냉수한그릇선교회' (사전 대표회장:박삼수 목사)를 조직했



다. 냉수한그릇선교회는 무더운 여름날 심한 갈증을 느끼는 목회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냉수 한 그릇선교회는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며, 영육간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 또한 그동안 회원교회를 순회하며 월례회를 가진 후 주변 지역에서 전도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회원교회 대다수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어서 추진력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신도 참여를 확대시키는 한편, 중대형교회 목회자를 회원으로 확보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어려운 목회자 및 가족을 돕거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냉수한그릇선교회의 주요사업이었다. 하지만 12주년을 맞은 냉수한그릇선교회는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 인근에 복지와 영성수련 등을 종합적으로 감당할 5만평 부지에 살롬하우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며, 모금운동과 좋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여기서 소독사업과 공동체기업, 농장을 운영하며 자립방안을 모색하고, 특화된 이벤트와 사업을

전개해 지역교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서 은퇴 목회자 자원을 활용, 개인의 전문성을 살린 전문복음사역전개, 실버선교사 파송, 목회자 평생훈련원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목회협력과 전도, 선교활동의 다각화 모색, 신학생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소외계층 지원 등 사업의 다각화 또는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1구와 1만원 1만명의 회원과 1천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는 범기독교적인 사업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힘을 내고 있다.

냉수한그릇선교회를 창립시킨 박삼수 목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던 목회자가 선교회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감사하는 모습, 이러한 일 때문에 냉수한그릇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도울 분을 찾지만 힘이 미약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 소외받는 '작은 자'가 없도록 힘을 모읍시다"라고 말했다.

도움과 기도해 주실분 연락처 : 053)794-1007

국민은행 599701-04-124267 냉수한그릇선교회

대구지사장 박수영 기자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0.30(주)~21(수) 새창평은혜교회(피은혜 목사) ☎(055)238-0192

6(주일) 저녁 평택 토진교회(주군선 목사) ☎(031)683-6010

7(월)~ 9(수) 서울 우리교회(박석구 목사) ☎(02)715-5792

10(목)~11(금) 서울 천양교회(오도재 목사) ☎ 010-3730-2921

14(월)~17(목) 청주금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043)269-5211

17(목)~19(토) 서울 성산금보기도원(원장 노인자 목사) ☎(02)494-3853

18(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19(토) 오후 일산 예수생명교회(노요한 강도사) ☎ 016-9315-7354

21(월)~23(수) 서울금석영성원(김남식 목사) ☎ 010-3350-0091

24(목)~25(금) 제주지역 연합성회 및 세미나(제주지역총재 박인세 목사)

주최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25(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28(월) 오전 청주금석수양관(원장 백효선 목사) ☎(043)269-5211

28(월)~12.1(목) 서울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2)456-1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98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41-7770

추수감사 및 JTNTV신문방송 6주년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예복교회 예배 시간표

■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유·초등부 :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 주일오후 3:30 청년대학부 : 주일오후 2:00	■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00 ■ 수요일밤예배 수요일오후 8:00 ■ 금요일아기도 금요일오후 10:00	■ 구역장교육 수요일오후 9:00 ■ 심야기도회 매일오후 10:00
---	---	---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선교목사 : 한인규	협동장로 : 전승길
부목사 : 유대훈	지휘자 : 조은영
교육전도사 : 변인우	반주자 : 박영서, 양효진
영예장로 : 황희수	소화음
사무장로 : 한광희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소 : 우)139-75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미주동방APT 단지내)

☎교회 : 02)3391-9676(대표전화) H·P 010-5267-1434

한국기독교 금주운동본부 발대식 가져

350만 알코올중독자 복음화와 범국민 금주운동 결의문 낭독

경계 침체로 삶이 힘들어지면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만 715명이던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 환자 수는 2006년 6만 715명, 2007년 6만 6196명, 2008년 6만 8146명, 2009년 7만 3886명, 2010년 7만 4678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도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5년 만에 88%나 증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23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의

24.2%, 공무원행방해죄의 63.3%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정이 늘고 음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가 금주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대표 박우관 목사)와 손잡고 3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범국민 금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술 광고를 폐지하고 24시간 편의점의 술 판매를 금지하며 술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자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알코올을 피해 가정 돌기와 서명운동, 치료시설 확대 등을 범 교단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자 재활 공동체와 치유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술 없는 금주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알코올 치유 목회자들이 초,중,고,대



알콜 중독 본부결의로 낭독

학과 기업체 등에서 알코올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와 관련한 홍보영화를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술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매년 농담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속수무책으

로 방관하고 있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며 범국민적인 금주운동과 알코올 피해 대책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또 무절제하고 퇴폐적인 음주문화를 공중과 공영방송에서 연속극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퇴폐와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는 자체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고 촉구했다. 입법기관도 알코올을 피해

대책을 법으로 제정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음주문화로 알코올을 피해를 극소화해 주길 호소했다. 200여명의 모임 참석자들은 신신목 목사, 조한곤 작곡의 '금주(禁酒)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신신목 대표회장은 "TV에선 인기 연예인을 앞세운 주류회사 광고와 거리에는 술집 간판이 즐비하다.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라며 "교계가 앞장서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 금주운동본부 본부장 박우관 목사는 지난 15년간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하여 치유사역을 힘써왔다. 박 본부장은 특히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알코올중독은 이웃과 국가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마약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 낭독

우리는 오늘 술로 인한 국민건강과 경제적 손실 및 인권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계신해 보면서 그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국민을 상대로 금주운동을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08년 미션리이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마신 술값이 20조9000억 원이며, 술로 인한 의료비가 2조 8000억 원, 그리고 사망자는 22,000명에 이르고, 알콜중독자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인구대비 알콜 중독자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술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매년 농담이처럼 증가 하고 있으며, 가정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며, 범국민적인 금주운동과 알콜 피해 대책을 위한 우리의 뜻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무절제하고, 퇴폐적인 음주문화를 공중과 공영방송에서 연속극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퇴폐와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에서는 자체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입법기관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음주문화로 알콜 피해를 극소화해 주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1. 우리는 언론을 통한 술 광고

를 폐지하고, 편의점의 술 판매를 금지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막대한 세수를 올리고 있는 정부당국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1. 우리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알콜 중독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알콜 중독피해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의무화 할 것을 정부당국과 업체에 강력히 요구 한다.

1. 우리는 우리의 결의의 실현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적극전개할 것이며, 예방교육과 알콜 중독자 치료를 위한 시설을 전국으로 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를 위한 서명운동도 아울러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1월 3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
발대식 참석자 일동

람보르기니 아벤트도르 LP700-4 모델

차 6억 원대 없어서 못 판다는데

6억2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에 출시되고 있다는데... 한국은 지금 지난 4일 출시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모델이 국내에서 이미 15대가 예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가격은 6억 원대를 호가하는데 역시 큰손들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헤럴드생생뉴스 이충희 기자에 의하면 람보르기니 공식 수입원인 람보르기니 서울 신중근 이사는 출시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람보르기니 아벤트도르 LP700-4 모델을 계약한 고객 수가 15대에 달한다"면서 "지금까지 1대가 출고됐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모델은 람보르기니 최상위 모델로 V12 엔진을



탑재해 700마력의 최고출력을 내는 최첨단 고성능 슈퍼카다. 70.4kg·m에 달하는 최대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이 2.9초에 불과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350km이다. 고성능 슈퍼카에 걸맞게 다

양한 최첨단 기술과 소재가 사용됐다.

이 모델에는 람보르기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싱글 셀 모

노코크 바디가 적용돼 차체 무게를 현저히 줄이면서도 강성 및 안

전성은 극대화됐다.

싱글 셀 모노코크 바디는 F1 경주용 머신의 차체 제작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강철 또는 알루미늄 등을 접합해 차대와 차체를 결합시킨 기존 방식과 달리 접합 과정이 없는 하나의 셀로 제작됐다. 그 덕에 모노코크 바디에 핵심 부품이 결합된 차량 무게가 229.5kg으로 평균 슈퍼카 가운데 가장 가볍다.

모든 제작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생산 수량도 연간 수백대에 불과하다. 때문에 가격은 무려 5억7500만백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일 뿐 현실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옵션과 컬러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출고되는 차량 가격은 대부분 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실제 출시행사에서 소개된 차량은 6억2000만원을 넘고 이미 계약된 차량 가운데는 6억5000만원 언저리에 달하는 차량도 있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비싼 고가의 차량이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신청할 경우 내후

년은 되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다.

신 이사는 "오늘 소개된 차량은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차량을 보지도 않고 계약한 것"이라면서 "계약이 이미 이뤄진 차량이 내년까지 차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오늘 바로 계약을 하더라도 내후년은 되어야 출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얼마나 많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들은 지금 당장 향한 잔 세를 얻는데도 단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몰리는 시대에 살면서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살길이 막막한 때 이지만 6억이 넘는 자가용은 없어서 못 판다...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시대는 언제일는지 국회는 종북세력에 정북당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힘을 쓰지 못하고 고물가를 전세대로 등 겨울철 서민들의 시름은 더해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찬양으로 복음전하는 김인식 전도사

경북북부 제 2교도소(구 청송제 2교도소)는 지난 11월 9일 '야곱의 축복'이란 교회가 되게 하소서'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CCM 복음가수 김인식 전도사를 초청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날 기독교 분과 위원장으로 담안의 영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기학 목사는 '하늘 바람의 교회' 조애숙 사모의 특별 연설로 2시간여 동안 함께 찬양과 아버의 교회(담안 교역자 김인식)의 청년들의 무언극을 통해 담안의 수용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또한 김인식 전도사가 '어머니



의 일기라'는 찬양을 부르자 수용자들 중에는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고, 이를 흘치려고 이곳저곳에서 술렁이는 행동도 보였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는 해마다 와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한다. 물론 2012년 7월에 다시 은혜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궁덕교회



담임 서명병 목사

2011년 포어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4:24)

담임 : 서명병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결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ov153.cafe24.com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성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통예배	1회 : 오전 7시 30분 2회 : 오전 11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성도회배	오전 7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자녀 8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새가족배	오전 8시	5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배	오전 9시	5층 대 예배실
주 일	대학부배	오전 9시	5층 대 예배실
주 일	유치부	1회 : 오전 9시 30분 2회 : 오전 11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유초등부	1회 : 오전 8시 30분 2회 : 오전 11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유고등부	오전 2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주 일	중·고등부	오전 8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아예배	오전 1시 30분	5층 대 예배실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담임 김농중 목사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 6(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 · 고등부	오후 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관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박수영목사초청간증집회

★ 박수영목사 간증내용 ★

-30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통 받다가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욱: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 받은
류정호: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하다 고침받은
김나영: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은
남영수:재생불량성빈혈 경북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받은
김영자:만성두통과 불면증 10여년 고생하다 고침받은
김복자:고혈압 20년지병 정상으로 고침받은

▣ 집회특징 ▣

☞ 신유.예언.상담이 정확함 ☞ 회개와 방언 은사가 나타남
☞ 병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 문제가 응답과 회복으로 치유
☞ 은사집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문의 **행복샘교회** 053) 752-8238
담임목사 010-8537-8291

제12회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베트남대회

2011, 제12차 인도차이나 5개국 한인선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베트남 선교대회 열어

인도차이나 5개국 500여명의 한인선교사들이 지난 10월 31일 ~ 11월 4일까지 베



주강사 손인옥 목사

트남(호치민시)대남성호텔에서 섬김과 열매(마20:28, 13:18절)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갖고 성황리에 마쳤다.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 협의회 회장(대회장) 정기선牧사는 환영

사에서 제12차 베트남 선교대회는 베트남 선교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대회라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면서 베트남 대회에 참석한 5개국 동역자 선교사를 높이 치하하고 주 강사로 참석한 손인식 목사(미국 베델교회), 임용택 목사(안양감리교회)와 성도들을 환영했다.

또한 정기선 대회장은 미국과 한국에서 온 강사들과 베트남 30여개 한인교회의 단합되고 합심된 기도와 사랑, 특히 베트남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수고로 대회를 준비했다며 감사했다.

그런가하면 전년도에 이어 태극의 흥수, 미얀마의 선교사 신분보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모이게 되었다면서 이번 베트남 대회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인도차이나에 보내신 본질 문제에 더 다가가는 모임으로 준비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정 대회장은 섬김과 열매란 주제를 정하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은 있었지만 기도중에 순조롭게 강사 문제와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이처럼 기도의 능

력은 사역에 있어 큰 열매를 맺게 한다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베트남 선교대회를 열어가길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선교대회에 송정미 사모의 찬양으로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인도차이나 5개국 각 나라지역에서 동역자들의 수고의 사역은 각 분과로 나누어진 가운데 시작되었고, 발제는 선교사가 하고 응답은 강사진들이 하면서 우리만의 생각과 시각을 전하며 다른 분들의 Response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했다.

또한 임용택 목사(안양감리교회)강사, 김의원 박사, 이광길 박사, 이용수 교수가 강사를 맡았으며, 조명순 선교사, 김정환 목사, 김영빈 목사가 특강을, 송정미 복음가수의 간증과 찬양, 사역별 분과토의와 국가별 기도회를 통하

여 현지에서 사역에 많은 도전과 새롭게 힘을 얻는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2012년 제13차 인도차이나 선교대회는 라오스에서 열리게 되며 주강사 손인식 목사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베트남 선교사 대회 일정을 마쳤다

웨신대 학생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사장 고발

총학생회,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 매입해 학교 재산 손해”

뉴스앤조이에서 본지에 메일로 보내온 기사에 의하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웨신대·총장 박영선) 총학생회가 지난 10월 25일 한동숙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 3년 전 한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으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한스빌’을 매입했는데, 부동산 시세보다 14억 300만 원가량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한 이사장이 한스빌에 대한 적정 거래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학교에 손해를 끼쳤으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 12월 2일, 한 이사장은 한스빌을 자산종합건설로부터 56억 1,1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한 이사장에게 정확한 매입 가격과 목적, 수익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한 이사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총학생회 회장 김만선 전 도사는 “2009년 2학기 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한스빌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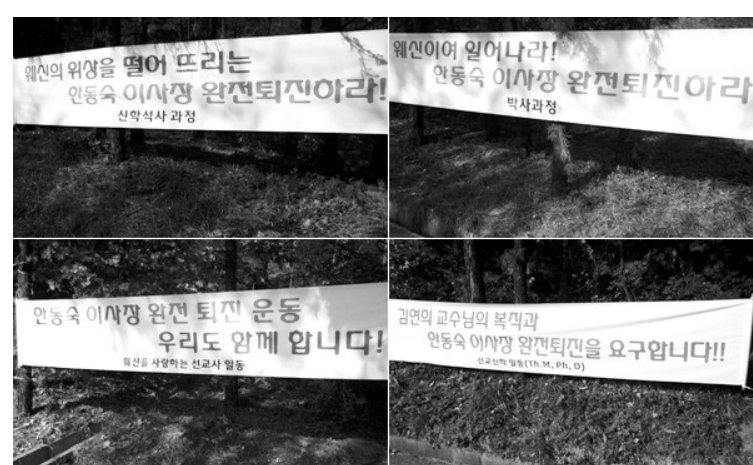
학생들은 올해 7월 25일 감정원에 한스빌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원은 한 이사장이 한스빌을 매입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유사한 다세대주택의 거래 사례

와 평가 선례 등을 참작하여 두 개 동 중 한 개 동의 감정액을 21억 900만 원(따라서 두 개 동은 42억 1,800만 원)으로 평가했다.

학생들은 한스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산 이유와 학교 수익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의 해명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한동숙 이사장은 9월 30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자신이 직접 감정을 의뢰한 결과는 감정 가격이 53억 1,600만 원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의 감정 평가 액수는 총학생회의 그것보다 10억 9,800만 원이 많다.

총학생회는 한 이사장의 감정 의뢰 시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한스빌을 산 후 5개월여가 지난 2009년 4월 말에 감정을 받았다. 건설업에 종사한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지, 매입 후에 감정 평가한 액수를 따져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철준 변호사도 “만약 이사장이 발표한 감정가격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면 이사장과 감정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동숙 이사장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학교법인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또한 한 이사



장은 학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한스빌을 매입했다고 했다. 한스빌 주변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 가치가 상승이 될 것 같아서 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스빌 시세를 볼 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자가 11월 12일 한스빌이 있는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서 확인한 결과, 중개업자들은 현재 실거래 가격이 40억 원을 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중개업자는 “해당 지역이 장기 임대주택 지역으로 설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40억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다른 중개업자는 “한스빌 매입자는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했다.

현재 한스빌 시세를 알아본 웨신대 한 교수는 “신학대학교 이사

장이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얻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학교 재산에 수익은커녕 손해를 내고 있다며,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고 했다.

한편 한동숙 이사장은 신원우 교수(웨신대 신학학)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 신 교수는 지난 8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한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에 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글을 올렸다. 신 교수는 11월 11일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교수·학생들, “신학교가 이사장 개인 재산인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웨신대·총장 박영선) 교내 곳곳

에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분관 벽과 기둥에는 학생 200여명의 글과 서명이 가득하다.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의 열서도 있다. 이필찬, 신현우, 김근주 등 14명의 전임교수는 성명서를 내걸었다. 모두 한동숙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한 이사장이 배임 혐의 외에도 교수 임용 등의 인사 문제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올해 10월 13일 이사회에서 공학박사 이 아무게 씨를 부총장으로 추천했다. 이사회는 이 씨를 부총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교수협의회는 “과학기술대학원 부총장으로 신학 박사가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신학대 부총장에 공학박사가 온다는 것은 본교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처사다”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한 이사장은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이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지구촌교회 장로이고 중국 선교사다.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인물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한 이사장은 미용 치료를 전공한 이 아무게 씨를 실천신학 교수로 채용했다. 교수들은 “신학교에서 신학 전공 교수 숫자는 줄이면서 미용 치료를 전공한 교수를 채용한 것은 이사장이 웨신대를 신학교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면 한 이사장은 중국 중의대에서 침구학을 전공한 아들 홍 아무게 씨를 웨신대 사회복지 박사 과정에 입학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홍 씨는 교수들에 반

대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교수로 채용하려는 것으로 교수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기자가 묻자, 한 이사장은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에 아들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 이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 중에서 논문을 표절 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아무게 교수는 8번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서 10월 이사회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곧 이 교수를 징계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자신은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 논문 재사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재발행된 책에 내 논문을 인용하면서 8번 정도 각주를 달지 않았다. 이것은 내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논문을 표절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교수들과 총학생회는 한동숙 이

사장이 학교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전횡을 한다고 했다. 그들은 “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이사장직을 40억에 샀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2007년 11월 <새누리신문>에 따르면, 2006년 12월에 웨신대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동숙 이사장(당시 목사)은 장창수 목사(예장웨신 전 총회장)로부터 40억 원을 투자하면 학교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약속받았다고 했다. 2007년 1월 5일 한동숙 목사는 장창수 목사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건넸 뒤 김차생 장로(당시 웨신 이사장)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40억 원을 주고 학교를 샀느냐고 묻자, 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기사제공 뉴스앤조이

알려드립니다

지저스티임즈 창간 4주년, JTNTV신문방송 6주년을 맞아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신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전화: (032) 672-3031 (팩스겸용) 직통: (070) 8230-0034

H.P: (010) 5468-6574

신문기사 제공 및 광고문의는 위 전화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모집

서울캠퍼스



학장 서화평 박사

연혁

160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 보수신앙인들이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지금부터 120년전인 1884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Atlanta Bible College를 세워 많은 목회자를 배출시켜 왔음. Atlanta Bible College는 2003년 3월에 조지아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학부를 분리하여 Puritan Theological Seminary로 설립 운영중 2007.3.1Puritan Theological Seminary Korean Campus를 승인함.

목적

본 대학은 순수한 기독교신앙을 목적으로 기독교 학문과 학술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신실한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입학

대학(고졸세례자), 대학원(신학대학 졸업자)

학제

대학 4년 8학기, 대학원 2년 4학기

강의대 학(매주 토요일 10:00~17:00)
대학원(매주 목요일 10:00~17:00)

교수 신실한 전공 교수로 강의 진행

특전 대학졸업후 목사고시, 목사안수
미국 퓨리탄 신학대학 추천 유학
캠퍼스 대전 2007. 3. 1 개강
논산 2010. 9. 1 개강
서울 2011. 3. 1 개강

입학서류 입학원서(양식), 이력서1통, 주민등본1통

논산캠퍼스



총장 서영웅 박사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Puritan Theological Seminary)

서울캠퍼스: 서울 중랑구 목1동 156-2 열린축복교회내
학장 서화평 (011-409-9115)
대전캠퍼스: 대전 동구 중동 3-29 퓨리탄 장로교회 내
(논산캠퍼스) 총장 서영웅 (010-6503-3022)

칼럼

국가치안과 조직폭력

중국의 무술영화가 유행처럼 방영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영화의 주인공에 대한 무술실력을 극찬 하면서, 체육관을 찾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무술영화의 주인공들 이소룡, 이연걸 등은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영웅들이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강패리는 폭력배는 있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지난날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소탕하여, 삼천교육대로 보내 정신재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 후 많은 정치적 변화 등으로 사회폭력에 대해 치안입장에서 느슨한 것 같았다.

지난 인천 조직폭력 집단 난투 사건을 보도로 접하면서, 조직폭력은 점조직화 되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조폭 사건을 계기로 치안 당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지시하여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는 건설사업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담하여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등, 사회불안 및 경제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회현실이 되고 있었다.

서영웅 목사

푸리안 정로교회 목사



금번 인천 조직폭력 난투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은 너무 미숙했다는 것은 힘의 원리에서 밀린 것이다. 경찰은 국가와 민중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이 힘이 약해 조폭에 당하는 상황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강한 경찰은 어떠한 강.폭력 앞에서 힘을 겨루어 제압 체포해야 한다.

60년대 무술경찰은 단속소찰로 모든 범죄자들을 제압 처리 하였다. 태권, 유도, 검도 등 4단 이상 무술경찰들은 당시의 정치강패, 강.폭력배 소탕하는데 기선으로 제압하는 여율을 가지고 경찰위상을 지켰다. 금번 인천 사건으로 전국 경찰청의 강력계, 광역수사대, 일선 서에 조폭단속반을 구성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됨은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찬사를 보낸다. 사회 안정이 안 되면 경

제안정도 안 된다.

국가경쟁 수치가 높다 해도 사회에 범죄자가 많아진다면 안정 사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국가안정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문화, 종교 등 가정과 사회에 친숙해 져야 할 사항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치안은 국가, 사회, 가정, 모든 분야에 안전과 발전을 위한 울타리이며 합인 것이다. 경찰은 독수리의 기상을 잃지 말고 힘 있는 날개와 날랜 부리와 강한 발톱으로 사회 모든 분야의 범죄 행위자에 대해 강한 힘으로 적법조치 해야 한다. 국가는 경찰에 무궁화와 독수리의 합친 기상을 주었다. 치안경찰에 독수리의 힘을 주어 사회 안정을 명한 것이다. 금번 조폭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수리에게는 전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경찰은 날짐승의 제왕으로서, 어떠한 범죄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날카로운 부리와 강한 발톱으로 처단하여, 안정 사회를 이루어 준다면 환호와 신뢰를 받는 경찰로서 시민들의 신뢰는 매우 클 것이다.

크리스천다움 스피치 (2)

‘예수님의 품위언어(品位言語)’

전 아 목사

다움스피치센터 대표



질 때 그 나름대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존중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지 ‘품(品)’ 자를 보면 ‘입구(口)’ 자가 셋이 있는데 중앙 상단에 자리한 ‘구(口)’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나’ ‘나와 모든 것’ 위에 존재함이 가장 품위 있다 하겠다. ‘품위를 잃었다.’ 함은 ‘제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주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 예수께서 열 두 살 되던 해 성년이 되어 부모들과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성전에 가보니, 랍비(선

생)들과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그 모친이 말하기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분노하였다.

이때에 어린 예수의 대답을 들어보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른들도 자칫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이탈하기 쉬운데 12세의 소년 예수는 본인의 근본 사명 곧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의 의식을 뚜렷이 제시하는 놀라운 품위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공생애 들어가기 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공야로 가서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 승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 관에 이 세상을 이길만한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만 신안인의 품위를 지키는 신앙생활과 언어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다움 스피치상담: 010-8200-9172

칼럼

“꿀벌의 신비”

벌들의 사회는 여군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왕이 하지 않고 예측된 일벌들이 한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장소선택을 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일은 여왕이 겨울잠을 잔 후 봉방에 매일 1천5백 개의 알을 낳고 그 봉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매년 봄에 일어난다.

이때는 수천 마리의 일벌들이 이주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여왕벌과 함께 이주를 한다. 왜냐하면 여왕 없는 일벌들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매우 어려서에도 이 여왕은 일벌들의 이주 계획에 대해 전혀 논치를 못 채듯 하다.

유모들이 이 여왕의 뒤에서 유충호르몬을 공급하여 새로운 여왕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적어도 3주전에는 이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이 기간이 한 마리의 왕위계승자를 길러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시점이 되기 며칠 전부터 이주 의사가 있는 일벌들은 이 왕위계승자를 다이어트

시킨다. 살찐 여왕으로는 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왕위계승자가 우화되면 아주 의사가 있는 일벌들은 저장된 꿀을 한 번 더 왕창 먹고 출구로 불려간다. 잠시 후 새 여왕이 비행을 시도하면 이 여왕을 따르는 자들로 공중에는 벌 구름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한 벌의 사회가 절반으로 바뀌어 진다. 우리는 이것을 분봉이라고 부른다. 이 여왕은 앞에 가로막힌 첫 번째 굽은 나무줄기에 힘없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여왕벌이 신비의 페로몬 향을 방출하기 때문에 여왕을 중심으로 벌의 대집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곧바로 일시적인 이 야영지에서 가장 경향이 많은 정찰 벌들이 척후병으로 지원하여 여러 방향을 향해 떠난다. 여기서 벌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 마리의 정찰 벌이 거쳐치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야영지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집터를 천거한다. 이 천거방법은 춤을 취 선전한다. 역시 다른 정찰 벌들도 춤 언어로 微

킵湧 발견한 집터를 위해 과시한다. 이때 여왕 많은 일벌들은 춤 벌이 가르쳐준 약도에 따라 길을 떠난다. 일벌들은 춤 벌이 천거한 집터를 답사한 뒤야 영지에 남아있던 다른 벌들에게 춤을 취 자신들의 의사를 전한다. 인간의 선거운동과 다른 점은 이 벌들에게는 결코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정의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복지만을 위해 각 정찰 벌은 다른 정찰 벌의 의견제시에도 관심을 갖는다. 만일 다른 정찰벌이 제시한 장소가 자신의 장소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이 정찰 벌은 그 쪽에 동조한다. 꼬리 춤의 활력정도와 걸린 시간은 집터의 질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갖는다. 자신의 선택에 의심을 한 정찰 벌은 훨씬 무려져져 활기 없이 춤을 추고 이로써 다른 집단의 정찰원들을 거의 규합할 수 없게 된다. 그 벌은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경쟁자의 집터 선전에 나선다. 마침내 어떤 집터에 찬성자 수가 과반수에 이르면 이 선거운동 일벌들은 한쪽 집단의 편을 들게 된다. 그리고 대개는 소수파들도 이런 결정을 받아들인다. (역사상 한국교원대학교, 동물행동학) 중에서...

칼럼

안빈락도(安貧樂道)

이준철 목사

칼럼리스트



“우리 교회에 나온 후 3년 안에 집사지 못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집사(?)들이 그리도 많은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영생(靈生)의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일류 대학에 합격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 등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절대조건은 아닌 것이다. 만일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것이 전제조건이 된다면 사물에 실패하고 대학에 낙방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위와 같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신앙관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혹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처리리 열렬한 무속인을 찾아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곳을 찾아가면 최소한 행운의 말(fortune tell)이나 아니면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불행 예방

책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난을 분별없이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이 결코 하나님을 잘못 믿은 죄나 저주는 아닌 것이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어떤 이는 부자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약육강식 논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의 법칙도 아닌 것이다. 초대교회는 안빈락도 정신으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핵심으로 삼고 유무상통하면서 법사에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안빈락도라는 말은 조선시대 노계 박인로가 공경한 현실과 그 개선의

가능성마저 무산되고 마는 절망감과 갈등의 심정을 ‘누항사’라는 시가집에서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 하박국 3:17-18에서는 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안빈락도하는 신앙인의 지혜를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 자부하는 이의 진리가 가난으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에게 진리가 아니고 실리(失理)인 것이다. 성경은 부자들의 성공 사례담이나 출세를 위한 처세술 비법책이 아니고 참되고 행복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참 생명의 지혜서인 것이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우주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어찌나 태어나서 팔자 사남게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면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참으로 두려운 어리석음인 것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초연하게 안빈락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 나아가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실 것이다.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독교대안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9)

“종교의 위안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이 있음과 더불어 그의 성소에 있다. 한국의 축복들이 영광과 관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에서 그 앞에서 떨지이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영양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영양예배+가정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봉헌예배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월요일기도회
각구별예배	각구별 10:00	각구별 2부	세례하는 예배

교향악교 예배안내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평화대교관	학원전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평화대교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평화대교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평화대교관	중학교 1~3학년
고등부	주일 오후 8:00	평화대교관	고등학교 1~3학년
청년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8~30대이혼
청년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0대이혼이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10-9
대표전화: 031)384-7408 부목사실: 384-9744, 385-8933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2011교회표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자!” (행2:47)

한국기독교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2011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일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일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청년회	토요일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분	시간
1	초년사모예배	월요일 오전 11:00
2	배움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구교실	수요일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일시간
5	소통에 속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소통에 속구교실	주중 평일
8	제자훈련	주중 평일
9	홍성제일교회주교실	주중 평일
10	홍성제일교회주교실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장실)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문영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토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031)424-7612
H.P: 010-4436-7060

목회자칼럼**W.C.C.(세계 교회협의회)란? (5)**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 제1차 W.C.C. 총회(암스텔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W.C.C.의 제1차 총회는 1948년 22일-9월 4일 까지 화란의 암스텔담에서 세계 44개국 147개 교회에서 온 351명의 대표들로서 열렸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정통교회는 불참했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대표들이 모였다(Ibid. p. 41).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Man's Disorder and God's Design)을 제시했다. 이 총회의 주제 강연은 칼 바르트(Karl Barth)와 다드(D. H. Dodd) 박사가 담당하였다. 주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 되었는데 특히 가시적인 세계교회의 통일이 주장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구속주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회적 관심과 영향에 더 관심을 가졌다. 즉 연합국과 동맹국의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 유럽의 재건을 돕는 것, 전쟁난민과 포로들을 구호하는 것, 책임성 있는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한 정의등 정치적 무질서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다. 그들은 세계 교회의 죄악을 누우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이룩하여 세계에 대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암스텔담 메시지를 채택했다(김명혁,『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p. 75f). 암스텔담 총회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4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했다.

제1분과는 하나님의 의장(贖)안에 있는 세계교회로서 교회의 본질(本質)을 갈 발트는 그의 논문에서 교회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과 그의 승리를 증거 할 증인들을 불러 모으는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交際)를 이루는 과정의 결과”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체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 그들의 세상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2분과는 교회의 공동사업이 복음전파(福音傳播)와 사회봉사를 강조했다. 헨드릭크래머(Hendrick Kraemer)는 그의 논문에서 “복음화 즉 모든 나라, 모든 환경과 문명, 모든 조건과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왕의 혁명적 세계혁명 가운데서 말과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를 증거 하는 것이 교회의 세계적 과업”이라고 말했다(Ibid. p. 78).

제3분과는 교회와 사회의 부조화(不調和)로서 현대문명의 부조화와 위기를 분석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건설(建設)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영호, 『W.C.C.운동 비판』, #56194: �: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p. 50).

제4분과는 교회와 국제적 부조화인데 현대 문명의 부조화를 분석한 제3분과에 비해 여기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종류의 독재와 제국주의를 물리칠 것과 기본적인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암스텔담 총회는 이전 국제대회에서 볼 수 있던 열광적 낙관주의가 지배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의 상처와 문명의 모순을 실감하

면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공동적 책임을 다짐한 심각한 모임이었다(김명혁,『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 79).

제2차 W.C.C. 총회(에반스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

제1차 W.C.C. 총회 이후 6년 뒤인 1954년 8월 15일-31일 까지 미국(美國) 에반스톤(Evanston)에서 세계 161개국 회원 교회로부터 온 502명의 대표들이 모여 제2차 W.C.C. 총회를 열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인데 암스텔담 총회에서 다루었던 교회론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소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보다 깊게 다루었다.

에반스톤 총회는 에반스톤 멧세지를 발표했는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소망임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정치적 및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다만 간단하게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에반스톤 총회는 6개의 분과를 나누어서 연구와 토론을 하였다(Ibid. p. 81.).

제1분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으로서, 교회의 분열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그 분열의 죄악을 벗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전통과 특성을 부인하는 죽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교회가 준비되어 결단에 이를 때 교회의 증거가 죽음에의 순종(順從)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교회는 습관적(習慣的)으로 물려받은 생활형태(生活形態)를 포기(拋棄)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할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2분과는 교회 밖을 향한 교회의 선교에 대한 것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박영호,『W.C.C.운동 비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p. 53).

제3분과는 세계적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사회”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다.

제4분과는 세계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대한 것이다.

제5분과는 인종적 및 종족적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국제적 평화와 정의구현을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세계국가들의 대중을 살해하는 무기사용과 침략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6분과는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직업에 대한 것이었다(Ibid. p. 54).

이 에반스톤 총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군비감축(軍費減縮), 대중을 살상(殺傷)하는 전략 반대, 인종차별 철폐(撤回)를 주장했다.



이원석 목사
.....
은광교회 원로
본지 교론

백석 목우회 제4차 정기 목회자 세미나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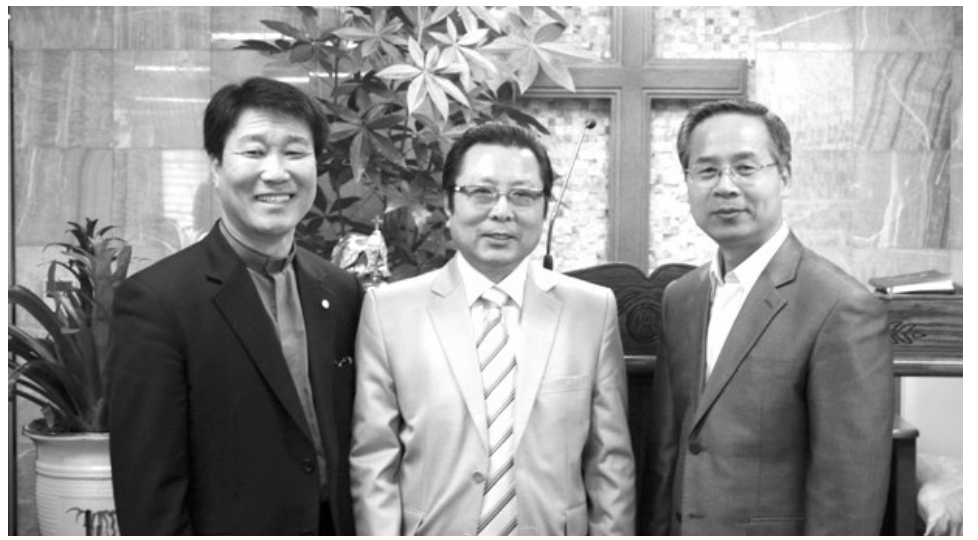
“신천지, 교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백석 목우회(회장 강우선 목사, 은빛교회)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은빛교회에서 15일 오전 11시에 ‘제4회 정기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실례를 들어가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풍성대 교회를 담임하는 정명기 목사로, 신천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대 목회에서 이단의 대처와 방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이므로 교리교육의 중요성 및 목회자의 이단에 대한 지식 습득과 상담의 중요성을 피력, 이단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경각심 또한 일깨워 주었다.

또한 강사의 사모인 찬양 사역자 김항두 목사의 찬양으로 세미나가 더욱 은혜로웠



다. 백석 목우회는 백석대학원 목회 전문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격월 정기적인 모임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동문 목회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

편성국 부장 광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교도소 재소자들 재범률 높아....

교도소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을 본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라고 하는 식에 의아해 하는 표정이다. 그런데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면 답은 간단하게 한다. “죄를 짓는 사람이 갑니다.” 그럼,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다 교도소에 가냐? 하면, 그때는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방교정청까지 합하면 54개의 교정시설이 있고 2011년 3월

출소자들을 취업시켜주면 정부가 한 사람 당 얼마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재범을 막기 위해 실행하는 제도이지만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 중에 초범이 36.3%로 16,571명이고 재범은 63.7%로 29,090명이 하루에 수용된 상태라고 지난 번 글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 미만의 수용자가 829명이고 70대 이상이 377명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함을 부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실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가정의 소중함과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전라도 모 지역에서 한 목회자가 십대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을 언론에서 지적인 적이 있어 사회에 부끄러움을 산 적이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함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경향이 종종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기학 목사
.....
포항지사장

출소 후 갈 곳 없어 다시 범죄.....**교회가 돌아보아야.....**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약 45,356명이 수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실태를 보면 초범은36.3%이고 재범률은 약 63.7%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 왜 이렇게 재범률이 많은 나오는 상태인가?

여러 가지의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출소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출소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럼, 출소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태인가? 정부는 출소자들을 위해 고용보완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 목사들부터 편법에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성도를 또한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축복이라는 망상 속에서 무엇이 복이고, 성도의 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편의주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성경은 죄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욕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치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터 목사

협동목사 : 이충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할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승, 유신성

찬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은

예 · 배 · 시 · 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일, 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축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수원그리스도의교회**

창간 6주년 축하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신문 JTNTV가 창간6주년이 된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는 JTNTV방송과 지면을 통해 문서선교로서 발행되는 지저스타임즈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불이 사라지고, 정의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문방송, 목회자들에게 유익을 주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같은 정론지가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냉철하고,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또한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여 상처받은 교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주기를 기대하며 축하합니다.



담임 김갑기 목사

·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부회장
· (재)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제8대 이사장

442-8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4-1
☎ 031)234-5469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하는 믿음과 신앙은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충성 그 아름다운 열매

성경: 마태복음 25장 14-30절 찬송가308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각자의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중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 각각 배나 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적으면 적은대로 그리고 재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어진 재능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충성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믿음의 여유를 가져라

성경: 마태복음 25장 31-46절 찬송가222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각 각 오른쪽과 왼쪽에 두시는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복 받은 자라 말씀하시며 왼쪽에 선 자에게는 저주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이웃을 사랑한 자들이었으며 왼쪽에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성경: 마태복음 26장 1-13절 찬송가428장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평소예 마리아라가 예수님을 간절히 뵈기 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찾아오시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누구도 상상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도 놀랄 만한 나만의 최초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제목: 선택하라

성경: 마태복음 26장 14-16절 찬송가323장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갈 십자가의 길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일에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롯유다의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어떤 사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한일에 지혜롭고 악한일에 미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주님의 사명이기에

성경: 마태복음 26장 17-30절 찬송가506장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반당할 것이라는 사실과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도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이기에 묵묵히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먼저 구할 것은

성경: 마태복음 26장 31-46절 찬송가459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겔사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는 우리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내 계획 뜻을 아뢰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폭력보다 더 큰 힘은

성경: 마태복음 26장 46-56절 찬송가613장
본문을 보면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물러오자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군병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칼을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네 이웃과 분쟁이 있더라도 똑같이 상대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발 양보하고 풀어 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예수님을 바로 알자

성경: 마태복음 26장57-68절 찬송가212장
본문을 보면 겔사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끌려와 재판관을 받는 장면입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 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낙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그 다음을 기대하라

성경: 마태복음 26장69-75절 찬송가255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곡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살한 가롯유다와 달리 그는 통곡함으로 인하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 오셔서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마다 죽음의 무덤속에 있을 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길 주님을 기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키실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13.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 마태복음 27장1-10절 찬송가284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최후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뉘우침'이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였지만 주님께 향한 진실한 고백이 없었고 회개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뉘우침 후회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변하는 '회개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후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그 사랑으로

성경: 마태복음 27장11-26절 찬송가144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후 십자가형을 언도 받고 로마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으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오른 손에 갈대를 그리고 침을 뱉으며 희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수모와 조롱을 묵묵히 인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인내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으로 인내하는 가정들이 되어 날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믿는 무리가 더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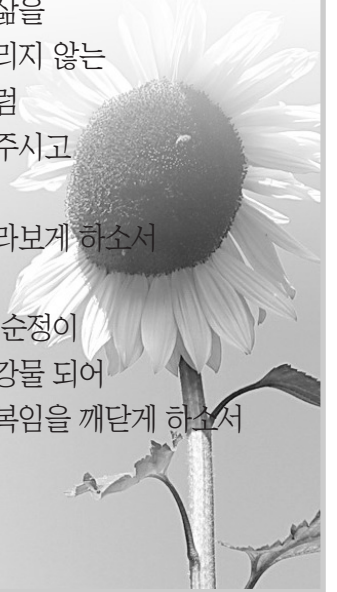
해바라기처럼

최정성

목 빼고
하늘만 본다
수수한 얼굴
잔 근심 하나로 묶여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깊은 고뇌와 수렁의 눈이
깨끗한 햇빛으로
청결케 되어
어지러운 삶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긴 허리처럼
곧은 믿음주시고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 향한 순정이
끓임없는 강물 되어
넘치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추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 a

표어 : **증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추 추수감사 및 창간 6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복음)총회**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 원장)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부 총 회 장 **김기섭** 목사
정은섭 목사
서 기 **장백향** 목사
부 서 기 **한창현** 목사
회 록 서 기 **서정일** 목사
부회록서기 **전희권** 목사
회 계 **박종숙** 목사
부 회 계 **곽인숙** 목사
총 무 **강정자** 목사

총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9-1 문성빌딩 3층 303호
☎ 02)2632-4463 H,P 010-7405-9191

화랑군인교회 ‘특별한 추수 감사 예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일 아침부터 저절로 터져 나오는 탄성이었다. 이를 전부터 쏟아진 비가 그칠 줄 몰랐기 때문에 주일에 전 병력 초청 추수 감사 예배라는 큰 행사를 남겨두고 다들 걱정이었다. 모두가 이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잠깐하더니 날씨 때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에 군 중령인 나도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다음날 기적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누구도 전날까지 비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햇빛이 꽤한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다. 그 날 자체로 감사의 날인 것 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앞으로 이어질 순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대가 되었다.

1부: 예배

주일 오전부터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그리고 10명의 장병 스텝들이 곧 있을 추수 감사 예배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식당에서는 음식 만들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본당 안에서는 예배준비가 한창이었고, 또 교회 옆 마당에서는 바비큐 파티 세팅으로 정신이 없었다. 오후 1시 30분 정도가 되자 월평동산교회와 대전제일감리교회에서 100여명쯤 되는 인원이 화랑군교회를 찾아왔고, 곧 100여명쯤 되는 엄청난 장병들이 때를 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방송국 CBS에서도 화랑군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단독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왔다. 금새 교회 안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



화랑군인교회

도로 꽉 찼고, 찬양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함께 열정을 다해 찬양하자 실외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은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였다. 대전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님이신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고 모두가 은혜의 바다의 빠져드는 느낌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연대장님과 1대대장님의 인사말씀이 이어지고 화랑교회 담임목사님이신 김용호목사님의 감사 인사와 월평동산교회 조운일 목사님의 축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시간을 마쳤다.

2부: 작은 음악회

곧바로 작은 음악회 순서가 이어졌다. 대전제일감리교회와 월평동산교회 성도 분들이 준비한 음악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생기발랄한 중고등학생들의 위십선스 부터 머리가 하얗게 희어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플롯연주 까지 한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합창이나, 독창 등

으로 모두가 참여한 음악회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바리들의 차례였다. 마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답가를 하듯 워십댄스를 준비했다. 군바리들의 어색한 몸짓덕분에 모두가 폭소를 하고 더욱더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 웃음으로 어우러진 이 작은 음악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여느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에 뒤지지 않는 화랑교회만의 감동적인 음악회였다.

3부: 바비큐 파티

“지글, 지글, 지글”, “냠냠, 찜찜...”,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아마 모르긴 해도 군인들은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이다. 바비큐 통의 장작에 불이 지펴지자마자 200여명의 사람들이 너도나도 눈치 볼 것 없이 별뿔처럼 달려들었다. 무서웠다. 특히 군인들의 먹는 속도와 모습은 마치 며칠 굶주린 하이에너지를 방불케 했다. 그 많은 삼겹살 100kg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샐러드, 떡, 부침개, 반찬 등등) 순식간에 없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같은 군인인 나도 놀랐다. 역시 군인 사역은 먹는 사역이라더니 맞는 말 같다. 어찌나 먹었던지 고기가 남았는데도 먹질 못할 정도였다. 마지막 군 고구마까지 구어 먹으며 한평생 빠짐없이 배를 불렀다. 모두가 즐겁게 먹으며 교제하는 모

습이 매우 보기가 좋았다. 행복한 웃음과 포만감에서 나오는 그 미소들이 잊히질 않는다.

오병이어의 기적

올해 8월 말부터 111연대 군 중령으로 오게 된 나로서는 화랑교회에서 처음 접해보는 큰 행사였기에 몇 주 전부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정신없이 준비해왔다. 그만큼 기대가 컸었고,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서 큰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능치 못하심이 없으셨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번 화랑교회 추수감사절도 행복한 추억의 일부분으로 기억 될 것 이다. 수천 명 단위의 사단이나 군단 크기의 군 교회도 감당 할 수 없는 이런 큰 행사를 고작 월 20만원의 재정뿐인 미 자립 교회에서 감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이었지만 실제로도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듯 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부에서 와주신 100여명의 손님분들과 군인 장병들 100여명이 합쳐 어우러져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이날은 눈이 부시게 화창한 어느 주일날 이루어진 감사의 날이었다.

본부중대 중령병 이병 오병철 (편집:군중부)
담임 김용호 목사 (kyh-714@daum.net)
화랑군인교회 육군 제 2201 부대
(http://club.cyworld.com/gallery1004)

예장대신 한남노회 목사임직예배 드려

김희재 박평열 유대훈 정용현 홍광표 등이 목사로 새롭게 출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한남노회(노회장 김한수 목사)는 지난 11월12일(토)오후2시 금천구 시흥 소재 산돌중앙교회(담임 신동우 목사) 본당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렸다.

노회서기 심종섭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안병호 목

사가 기도를, 노회장 김한수 목사는 “나를 충성 되이 여겨”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노회장 김한수 목사 집례로 많은 하객들과 일가친지들이 축복하는 자리에서 (김희재, 박평열, 유대훈, 정용현, 홍광표) 준

수위원은 (신동우, 이광섭, 임영설, 노병란, 김한수, 심종섭)목사들이었다.

한편 이날 안수를 받은 유대훈 목사는 본지 JTNTV방송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신임목사들의 부부가 기념촬영

인기총 성탄트리 11,12일(토)점등식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인기총)는 11월12일(토)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인천은 시민 280만여명중 100만 여명이 기독교인이다. 교회는 3,500여 교회로 한국 기독교의 전초기지나 다름없는 항구도시이다.

연말이 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인기총은 2011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으며, 인기총 제50대 총회장 최광영 목사(성덕 감리교회 담임)는 성탄

트리점등식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고 특별히 불우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에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인기총 임원은 사무총장 신덕수 목사(한일순복음교회), 사무처장 이성진 목사(사무국), 서기 이정식 목사(경인제일장로교회), 회계

서태복 장로(주안장로교회)이며, 공동회장에 이견영 목사(인천제2장로교회), 김기복 목사(인천침례교회), 손신철 목사(인천제일장로교회), 황관하 목사(동암제일감리교회), 김조 목사(개혁고려신학교), 이동원 목사(신성성결교회), 김흥규 목사(내리감리교회), 최영 장로(송현성결교회)등이다.

인천에서 촬영한 기사
kdp0920@naver.com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A 사이즈, 주보까지

FORCI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장당 잉크비 20원 (20%저렴)

최대적재 용량 2,500매

2011년 신제품!!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장당 20원 (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작동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 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다양한 처리능력

고생산성 (High Speed)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③ 칼라드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46~210g/m²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A3 20매
주보 인쇄기
양면 (음선)
팩스 (음선)
컬러 복사기
컬러 프린터
스캐너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매!!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판기 인쇄기·복사기·프린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품질!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1,595,000
₩890,000

중형제본 & 점지기
B5-A3까지 중형제본 점지기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점지기
2, 3, 4단 주보 원본에 점지 접히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점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등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광영 장로
H 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l14.com

중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작. 032)551-4114

장애아동과 함께 걷기대회를, 배우 이필모

배우 이필모씨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14일(금), 10시 30분에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이필모를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날 이필모는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장애아동과 1:1 걷기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장애인 합동 걷기대회 행사는 지역장애인가족 및 봉사자와의 화합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사로 총 1,000여명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배우 이필모와 밀알복지재단의 나눔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밀알복지재단과 희망TV SBS와 함께 아프리카로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이동진료사업에 동참했다. 이동진료에 직접 참여했던 이필모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아동,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적극 활동하고자 밀알복지재단의 홍보대사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필모씨는“지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통해 지구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으며 국내·외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필모는 향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국내·외에서 희망의 발판으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배우 이필모씨 장애아동들을 사랑하고 있다.

(사)지저스119 독도지킴이 범국민 기도회

고종황제 독도칙령제정 111주년 기념과 제6회 한민족 독도사랑 발표회 가져



독도는 한국 땅!“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를 세우라!”(렘50:2).“하나님!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세계만방에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주제로 (사)지저스119 독도지킴이 범국민 기도회가 지난 달 25일(화)오후 2시 국회의사당의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려 사 무총장 윤요섭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김호일 목사가 기도를, 김은진 목사가 성경 마가복음 10:46~52절을 봉독하고 남양주시 아가페합창단의 특송과

사라코라스의 찬양이 있을 후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는“겉옷을 벗 어던지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대표회장 주 목사는 맹인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우린 세상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지자고 말하고, 바디메오 그의 인생은 너무도 처참했고 가난했기에 헐벗고 굶주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맹인이었으며, 아버지도 자신도 거지, 대를 이은 거지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외치는 기도를 주문했다. 또 한 주 목사는 우리 선조들이 산속과 굴속, 골방과 마구간,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가마니를 덮고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듯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선조들은 저 일제의 만행에 먹지도 입지도 못했고, 너무도 추웠지만 그래도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외치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다며 설교했다.

또한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는 하나님 앞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외치는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포하고 전 세계에 여호와 의 이름으로 기를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의 주인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기를 세워주시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겉옷들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금숙 목사, 한상욱 목사, 박이레 목사가 나라와 민족, 남북통일과 독도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으며, 배진구 목사의 격려사, 오영숙 총재, 오상현 대표 등이 축사를 전하고, 지저스 119 독도지킴이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김호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111주년 기념 및 제6회 한민족 독도사랑 발표회가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에 이어 대회장 남문기 박사의 대회사와 축사, 환영사 독도노래, 625 참전용사 만세삼창이 있을 후 마쳤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지저스 119 독도지킴이 주최와 사단법인 나라살리기운동본부 지저스119 기도협의회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심한 국회, 국회 여야 동반자폭이 마땅해

백승묵 컬럼리스트

오늘 현재 국회는 의원정수 299명에서 4석이 빈 295명이다. 이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과 예산 및 동의권, 예산결산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등 막강한 직무권한 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 원내 발언면책특권, 철도 선박 비행기 공차로 타기, 국비로 입법보좌관, 비서관 등 식구 거느리기 등 온갖 특권과 처우를 누리는 <특별국민>이다.

재직 295명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을 보면, 집권 한나라당 168명, 제1야당 민주당 87명, 자유선진당 18명, 미래희망연대 8명, 민노당 6명, 창조한국당 2명, 박희태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입당거부 탈당 또는 출당 등 이런저런 사안을 가진 무소속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야당’이라는 <것>들이 2008년 4.9총선에서 참패를 하자 “쪽수가 모자라서 원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MBC PD 수첩 광우병위협조작 선동방송의 합을 빌려 100일 촛불폭동에 적극 가담, 동원되면서 국회는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장장 89일간의 가솔 방황 끝에 2008년 8월 26일에서야 원 구성을 마치는 진기록을 세웠다.

4.9총선결과는 친李에 의한 친차학살공천 여파로 친박 무소속과 친박연대 돌풍이 일어난 가운데,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노당 5석, 창조한국 3석, 무소속 6명으로 출범을 했으나 진보연대 참여 연대 등 從北세력이 주축이 된 촛불폭도와 격렬한 5석의 꼬마 민노당의 쟁관에 민주당이 질질 끌려 다니고 한나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가운데 국정은 무한정 표류하고 MB는 촛불폭도에 투항을 하고 말았다.

이제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국회는 또 다시 제2의 광우병촛불폭동 전야로 치닫고 있다. 총선직후보다 1석이 늘어난 민노당이 촛불폭동세력과

연대하여 원 내외에서 쟁관을 치자 민주당이 적극동조를 하면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아직도 원내과반수가 넘는 168석의 한나라당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제 역할도 구실도 못하는 게 2011년 11월 4일의 모습이다.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



당을 격멸할 6인의 의사도 10인의 의인도 없다는 말인가?

이 따위 국회라면 자폭을 하든지 해산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회는 합법적인 해산이 불가능함으로 재직의원절반만 자폭을 하든, 합박을 하든, 한강에 집단 투신을 하든, 해법은 있다고 본다. 다만 6인의 義士도 10인의 義人도 찾아 볼 수 없는 여권에서 이런 기적을 바랄 수 없다는 암담한 현실이 서글픈 다름이다.

문제는 MB정권이 ‘中道’를 빙자한 ‘左道’로 인해서 불법과 폭력이 입법의 본산인 국회

반의회 폭동반란세력 제압, 국회정상화에 나라의命運이 달려

이나 상임위원장 출입을 막고 단상을 점거 하거나 의상봉을 탈취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은 물론 ‘조폭’을 방불케 하는 당직자(?) 뿐만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 촛불폭도까지 월담을 하여 국회의사당에 난입, 입법부를 초토화 시킨 사례는 없었던

다. 의사봉을 잡는 국회의장에게는 경호권이 있고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질서유지권이 있다지만, 강기갑의 공중부양, 이정희의 악다구니, 문학진의 전기톱 난동, 쇠 해머 폭력, 최재성의 구두발길 질 폭력 앞에는 한나라당 오렌지 형 웰빙 족들이 몸을 사리고 쫓꾸니를 빼는 동안 국회는 폭동반란의 현장이 되고 종북세력에게는 해방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 할 때, 단 10인의 의인(義人)이 없어서 멸망의 참화를 입었다. 6인의 악인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파탄날 때 민주 민노 창한 등 종북 야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소위 자유민주주의수호세력 중에는 6명의 악

본회의장에서까지 일삼와 되도록 방관 방치했으며, 檢警 공권력 무력화와 사법부마저 짓누르고 있는 ‘종북 편향성’이라는 악령(惡靈)이 대한민국을 접수 지배토록 방인 방조한 데서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을 자초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여권은 이제라도 일치단결하여 함중도 안 되는 헌정 파괴 반의회 폭동반란 종북세력을 제압하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미뤄 온 북한인권법까지 국회법에 정해진 틀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판을 내야 한다. 민노당 6야당의 쟁관이나 민주당의 반의회 폭력에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치질서 회복 유지라는 대의(大義)로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

현 국회는 종북세력에 의해 마비되어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은 화가 나다못해 씩어 뭉그러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얼마까지 못해 종북세력의 힘을 입은 김정일 괴뢰로부터 좌초하고 말 것이다.

추수감사 및 JTNTV신문방송 6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노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추수감사 및 JTNTV신문방송 6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복의 근원이 될지이다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충성 - 감절의 선교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혜자
강도사 : 김성임
전도사 : 오정순,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추수감사 및 JTNTV신문방송 6주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송내역
공평산 아파트
북신촌사거리
서명미술평화원
장동초등학교
부천대입구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추수감사 및 JTNTV신문방송 6주년

원장 : **곽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정기환박사 C국인 초청 제주도 집중세미나 열어

「열매의 좋은 계절에 C국 사역자들 초청하여 열흘간 집중 세미나」



정기환 박사(D.Ed., Th.D.)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부천 천원중앙교회 담임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류에 따른 안방 연속극의 수출이나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 혹은 김치의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끼여들기에 멈추지 않는다. 지형적으로 자그마하고 동방의 변두리 국가로 간간히 알려졌던 한국! 그 한국의 남단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숨겨진 뜻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 제주도는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는 섬이다. 한국 본토의 육지로는 제3국인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던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개방이 되어있는 것이다.

열매의 좋은 계절에 C국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열흘간 집중 세미나를 갖는 프로그램을 제주도에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도를 향하는 항공기에는 수확여행으로 불리는 학생들로 가득 넘치고 있었다. 과거에는 신혼여행조차도 가기가 어려웠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고교생들은 물론이려니와 초등학교생들까지도 단체여행지로 삼게 되었으니 한국의 발전은 실로 수직 상승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살림이 어려운 나라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만도 아니다. 제주도를 찾은 C국의 일행들은 공항에서 무려 4시간여 잡혀 있으면서 꼼꼼히 체크해가는 심사에 불안해 있어야했다. 우리일행의 신분보증을 받고서야 간신히 입국심사를 통과한 저들의 첫 모습을 보니,

과거 60년대 시골 아저씨 아줌마들의 차림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평생 처음 체험하는 비행기와 외국이라는 설렘이 아마도 낮설고 까다로운 심사에 마음이 매우 상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모든 것을 지워가며 주님의 위로 속에 우리 일행은 제주도의 동남지역 성산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 여정을 풀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제주도에서 행사를 위해 장소섭외를 하는 중에 한국교회를 중 많은 부분이 회한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로 안정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와 수련원들은 쉽게 말해서 당연하다는 듯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미 상업화된 모양새로 퇴색되어가고 있었다. 도리어 자립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주님이 쓰시고자하는 것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사용해도 좋다는 약속을 하였다. 물론 숙식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더욱 기뻐하실 처소임에 확실하여 해변의 작은 교회로 정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어려운 교회에서 여찌 마냥 무료로 사용하겠는가. 이 곳에서 숙식, 교통 및 관광, 여러 제반 사항들 그리고 강의를 제공하며 단체를 이끄는 일들은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밖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물질과 시간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제약 속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들어온 대상자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으니 한국에 와서 특별한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안을 마다할 리가 없다. 짧은 기간에 투입된 교수목사님들이 20여명이다.

새벽시간 오전, 오후를 이어 밤으로 연결되는 길고 긴 강의에서도 졸거나 자는 자를 발견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한국의 성도들과 비견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 상념에 젖어들게 한다. 무엇인가를 주고자 강단에 섰지만 실상은 저들의 배움의 모습에서 도리어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게 된다. 과연 복음은 가난한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을 다시금 발견해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갈질로 감사하며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다 물질에 더욱 의존해 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든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다. 지금도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오고 있다. 성산일출봉을 오르내리면서 느낀 것은 중국인들이 80%, 일본인들이 10% 그리고 기타 국가와 한국인들이 10%정도로 보였다.

물론 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갈수록 많이 방문하게 될 섬임

에는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우리가 와 있는 기반이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불러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좋은 조건들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동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본래는 50여명이 신청하였으나 절반으로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저들은 비자가 없으니 자신의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마냥 기다렸던 목회자들이다. 여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순수하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들이 머나먼 나라에서 또 다른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적 양식을 취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던 10월 간의 여정이었다. 아마도 저들의 나라로 귀국해서는 색다르게 보였던 많은 일들을 쟁쟁가며 꽤나 시끄럽게 여러 날 들을 간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복음은 안팎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한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지만 김에스터(동순)권사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C국을 오가며 말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미나를 마치고 일행과 기념촬영

한기총, '2014년 WEA 총회유치 감사예배' 드려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 등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방한

2014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연맹(WEA) 총회 일정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11월 14일(월) 'WEA 총회유치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임시총회 대표회장 시절 WEA에 가입한 데 이어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2010년 이광선 대표회장 시절 차기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길자연 대표회장 등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 있는 WEA 세계본부를 방문해 2014년 10월 총회를 열기로 일정을 확정지었다.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WEA 총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복음주의 신앙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한국 기독교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동시에 차례대 지도자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한기총은 14일 오후 5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외 교계와 사회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WEA 대표단이 12일(토)부터 16일(수)까지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방한한 대표단 일행은 제프 터니클리프 목사(WEA 대표), 고든 쇼웰-로저스 목사(WEA 부총무), 엔다바 마자베인 목사(WEA 국제이사회 부의장), 한스조르그 트위러 목사(스위스복음연맹 총무), 토마스 실마허 박사(WEA 신학위원장) 등 내로라하는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다.

이번 감사예배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제1부 'WEA 총회 유치 감사예배'는 WEA 한국 디렉터 홍재철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환영사, 주남석 목사(공동회장)와 고든 쇼웰로저스 목사가 기도, 왕성교회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 전성원 장로(전 공동회장)의 성경봉독 후, 김선도 감독(명예회장)이 '능력 있는 복음의 4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다. 이어 정서영 목사(공동회장)가 '2014년 WEA 총회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기도'를, 한스조르그 트위러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축사를 박종주 목사(시인)가 낭독한 뒤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길자연 목사는 "WEA 총회가 한국과 세계 기독교계 모두에게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의 전환점을 맞게 하는 큰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임시총회 대표회장 시절 WEA에 가입한 데 이어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2010년 이광선 대표회장 시절 차기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길자연 대표회장 등 대표단이 WEA 본부를 방문해 2014년 10월로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WEA는 세계 7개 지역의 128개국의 복음주의 연맹과 104개의 회원단체로 구



재철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환영사, 주남석 목사(공동회장)와 고든 쇼웰로저스 목사가 기도, 왕성교회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 전성원 장로(전 공동회장)의 성경봉독 후, 김선도 감독(명예회장)이 '능력 있는 복음의 4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다. 이어 정서영 목사(공동회장)가 '2014년 WEA 총회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기도'를, 한스조르그 트위러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축사를 박종주 목사(시인)가 낭독한 뒤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길자연 목사는 "WEA 총회가 한국과 세계 기독교계 모두에게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의 전환점을 맞게 하는 큰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 2009년 임시총회 대표회장 시절 WEA에 가입한 데 이어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2010년 이광선 대표회장 시절 차기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길자연 대표회장 등 대표단이 WEA 본부를 방문해 2014년 10월로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WEA는 세계 7개 지역의 128개국의 복음주의 연맹과 104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6억여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기구다. 각국 정부와 언론, 타 종교 커뮤니티에 대한 복음주의의 창구이자, UN 내 자문 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 6년마다 개최되는 WEA 총회는 각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교회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2014년 총회에는 그동안 활동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국가들에서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총 200여 개국에서 1만~1만5천명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 기간 중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최근 한기총 파행과 관련, 예상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특히 인사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던 이광선 목사도 불참을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번 예배가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의 3남 문현진 씨가 관리하고 있는 UCI(구 통일교회 세계재단) 소유인 곳에서 드려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기총 수뇌부가 생각이 있거나 한건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6차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 AFRICA LEADERS CONFERENCE

오라(COME) ~보라(SEE) ~가라(G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LEADERS 아프리카 지도자 컨퍼런스

◆일시 : 2011. 11. 28.(월) ~ 12.03.(토) ◆장소 : 케냐(KENYA), 부룬디(BURUNDI), 르완다(RWANDA)



대표장사 정기환 목사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총재)



주장사 김남수 목사
(영순교회)



주장사 윤순희 목사
(사향의교회)



주장사 이혜숙 목사
(우리들교회)



케냐-영은채플헌당



남아프리카공화국-건축진행중



레소토-건축진행중



C국-신학교헌당



캄보디아-건축진행중

이번 아프리카 지도자 컨퍼런스에서는 부룬디와 르완다에 건축한 교회 헌당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늘 배후에서 협조해 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지오(지구촌오지) 교회건축행전에 함께하고 있는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